

日本 明治譯聖書の 翻譯語 研究*

- 動詞翻譯語와 訓點聖書の 관련을 중심으로 -

오미영**

〈 要 旨 〉

일본 최초의 公認譯 성서인 明治譯聖書の 간행 이전에 일본에서는 중국어 성서인 한문성서 위에 훈점을 단 訓點聖書가 널리 읽혀 지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880년에 간행된 明治譯聖書の 동사 번역어와 訓點聖書の 관련에 대해 고찰하였다.

明治譯聖書の 마가복음을 대상으로 동사를 추출한 결과 총 2159개가 추출되었다. 訓點聖書の 경우 한자와 일본어 훈의 결합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明治譯聖書の 번역에 큰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 결과는 이러한 예상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の 동사의 훈이 일치하는 것은 1021예로 전체의 약 47%이다. 또 두 성서의 한자가 일치하는 것은 1152예로 전체 용례 중의 약 53%에 해당한다. 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본어와 중국어의 한자 사용면에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훈의 차이는 본문 한자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예도 있으나 訓點聖書가 본문의 한자에 준하여 일본어로 읽어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漢文訓讀體라는 문체적인 한계가 있는 데 비해 明治譯聖書는 일본어 문장의 완성에 있어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두 성서의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明治譯聖書の 번역에는 漢文聖書 외에도 여러 성서들을 참고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고의 고찰 결과의 수치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공식적으로는 漢文聖書を 참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번역어의 선택이나 문맥의 이해는 訓點聖書を 매개로 하였음을 본고의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明治譯聖書, 訓點聖書, 한문성서, 번역어, 동사 번역어

1. 들어가는 말

일본어 성서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단히 많은데 그것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성서 번역사의 입장에서 고찰한 것으로 高橋虔(1970), 関根正雄(1980), 海老沢有道(1981), 門脇清·大柴恒(1983)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성서번역을 현대적인 ‘번역’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 中沢洽樹(1971), 岸千年(1972), 木下順二(1975)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일본어 연구의 입장에서 개별 번역성서에 접근한 것으로 御法川恵子(1965), 森岡健二(1969), 築島裕(1971), 彦坂佳宣(1990), 岩崎慎子(1995), 鈴木英夫·福井靖子(1999), 田中奈央(2000) 등 많은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漢文聖書와 일본어 성서 번역과의 관련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위의 세 번째 개별 번역성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漢文聖書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A00584).

** 송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조교수 일본어사

와의 관련을 다룬 연구가 있고, 川島第二郎(1993), 土崎健治(1993)와 같이 성서번역사적으로 고찰한 것도 있다.

본고에서는 초기 일본어 번역성서에 나타난 번역어 연구의 일환으로 1880년에 간행된 소위 '明治譯聖書' 신약성서의 번역어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일본어 연구의 입장에서 개별 번역성서에 접근하는 연구로 오미영(2008A:18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森岡健二(1969)의 고찰에서 訓點聖書의 존재가 간과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기독교 용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明治譯聖書에 나타난 번역어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明治譯聖書 이전에도 성서가 번역된 바 있다. 그러나 1837년 귀츨라프의 번역성서를 시작으로 1880년 이전에 간행된 성서들은 선교사 개인에 의해 번역된 '個人譯 聖書'였다. 그러나 明治譯聖書는 신약성서의 번역을 위해 1874년에 구성된 '翻譯委員社中'¹⁾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 번역된 일본 최초의 '公認譯 聖書'이다.

翻譯委員社中은 일본어도 중국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헵번, 브라운, 그린 등의 외국인 선교사와 그를 보좌하는 高橋五郎, 奥野昌綱, 松山高吉, 井深梶之助 등의 일본인 조력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번역에는 그리스어 원전성서와 그에 대한 영어주해서, 그리고 漢文聖書を 참고로 하였다. 漢文聖書는 1861년에 간행된 브리지맨컬버트슨역 『新約全書』를 사용하였다.²⁾ 이 『新約全書』 위에 漢文을 訓讀, 즉 일본어로 읽기 위하여 어순을 바꾸는 기호를 달거나 일본어 문장에 알맞은 조사, 조동사와 같은 부속어를 기입하고, 명사나 동사와 같은 자립어로 읽히는 한자 옆에 일본어 훈을 기록한 것이 訓點聖書이다. 이 訓點聖書는 당시 널리 보급되어 읽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성서가 간행된 이후에도 19세기 말까지는 수요가 많아서 계속해서 보급되었다. 訓點聖書가 1878년에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新約 明治譯聖書의 번역 최종단계에서 번역위원들이 漢文聖書を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訓點聖書を 참고하였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또 한 가지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의 관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訓點聖書에 훈을 단 사람은 松山高吉라고 알려져 있는데³⁾ 그는 다른 아닌 翻譯委員社中의 일본인 번역위원 중 한 사람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新約 明治譯聖書의 번역위원으로 활동한 시기와 訓點聖書を 만드는 작업을 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번역위원 전체가 訓點聖書を 전면적으로 참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松山高吉 개인을 통해서라도 新約 明治譯聖書의 번역에 訓點聖書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明治譯聖書 번역어의 고찰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 용어만이 아닌 일반 번역어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訓點聖書의 한자와 훈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초기 번역성서인 明治譯聖書의 번역어와 訓點聖書의 훈과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어 문장의 근간을 이루는 품사인 동사 번역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新約 明治譯聖書 마가복음⁴⁾을 대상으로 동사를 추출한 결과 총 2159개의 동사가 추출되었다. 이들 동사의 한자와 훈이 訓點聖書의 한자 및 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그를 통해 明治譯聖書의 번역어에 미친 訓點聖書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鈴木範久(2006:83-84)에서는 1872년 선교사 협의에서 결의하고 1874년에 첫 모임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이에 앞서 1859년에 간행된 것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1861년에 간행된 것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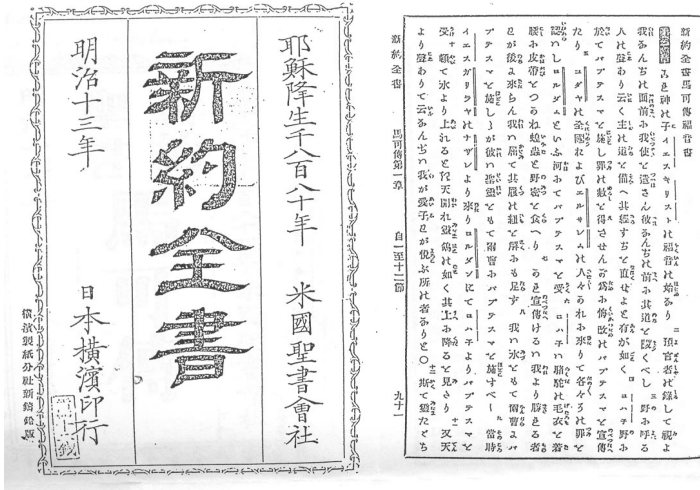
3) 海老沢有道(1981:310)

4) 우리말 초기 번역성서(이수정역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明治譯聖書 마가복음의 본문을 모두 입력한다.



〈사진1〉 明治譯聖書

〈사진1〉은 新約 明治譯聖書の 표지와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이다. 제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新約全書馬可傳福音書

第一章

- 1:1 これ神の子(こ)イエスキリスト의福音(ふくいん)의始(はじめ)なり
- 1:2 預言者(よげんしや)의錄(しる)して視(み)よ我(われ)なんぢ의面前(かほのまへ)に我使(わがつかひ)을遣(つかは)さん彼(かれ)なんぢ의前(まへ)に其道(みち)を設(まう)くべし
- 1:3 野(の)に呼(よ)べる人(ひと)의聲(こゑ)あり云(い)はく主(しゆ)의道(みち)を備(そな)へ其徑(みち)すぢを直(なほ)くせよと有(ある)が如(ごと)く
- 1:4 ヨハネ野(の)に於(おい)てバプテスマ를施(ほど)こし罪(つみ)의赦(ゆる)し를得(え)せんが為(ため)に悔改(くいあらため)의バプテスマ를宣傳(のべつたへ)たり
- 1:5 ユダヤ의全国(くにぢゆう)およびエル사렘의人々(ひとびと)かれに來(きた)りて各々(おのおの)その罪(つみ)를認(いひ)あらはしヨ르단といふ河(かは)にてバプテスマ를受(う)く

두 번째로 입력된 明治譯聖書 마가복음에서 동사를 모두 추출하여 그 한자와 훈을 마이크로소프트엑셀에 입력·저장한다. 위에 밑줄 친 것이 동사이며 원형을 입력한다. 단 동사 추출에 있어 「云く」「曰く」「い

ふ」의 「いふ」, 「あり」 「をり」 「問ふ」 「見る」 와 같이 사용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동사, 「~をもて」의 「もつ」, 「~による」의 「よる」, 「なし得る」의 「得る」 와 같이 보조동사로 사용된 동사 등은 제외하였다. 위의 본문에 밑줄을 친 것이 동사인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모두 12개의 동사가 추출되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모두 2159개의 동사가 추출되었다.



〈사진2〉 訓點聖書

세 번째로 訓點聖書を 모두 입력한다. 〈사진2〉는 1879년에 간행된 訓點聖書の 표지와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이다. 訓點聖書는 1878년에 처음 간행되지만 1879년에 정돈된 형태로 간행되었고 이후에 간행되는 訓點聖書는 1879년본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879년본을 사용하기로 한다.

訓點聖書는 두 단계의 입력과정을 요한다. 먼저 훈점 그대로 번각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明治譯聖書와 마찬가지로 訓點聖書 마가복음의 1장부터 5장까지를 훈점을 살려서 번각하면 다음과 같다.

馬可傳福音書

第一章

1:1 神之子耶穌イェス基督キリスト之福音其始也

1:2 始シレ在ガ預言ニ所ニ錄スル云ク視ヨ哉我遣ハシ我ガ使者ヲ於爾ノ前ニ以テ備フ爾ノ道ヲ

1:3 野ニ有二人聲一呼テ云ク備ヘ主ノ道ヲ直セトニ其徑ヲ

1:4 約翰(ヨハネ)在テ野ニ施シ洗禮ヲ傳ヘ悔改ニ洗禮ヲ俾ム得セ罪ノ赦ヲ

1:5 舉リ猶太(ユダヤ)地ヲ與二耶路撒冷(エルサレム)人一俱ニ出テ就キ之ニ悉ク在テ約但(ヨルダン)河ニ受ケ洗禮ヲ於約翰(ヨハネ)各ノ認ム己ガ罪ヲ

다음으로 훈점 그대로 입력한 것을 참고로 漢文訓讀文體, 즉 ‘書き下し文’을 작성하여 입력한다.

- 1:1 神ノ子、^{イエス キリスト}耶穌基督ノ福音、其(ノ)始めナリ。
- 1:2 預言ノ錄スル所ニ在ガ始シ。云ク視ヨ、我(レ)我ガ使者ヲ爾ノ前ニ遣ハシ、以テ爾ノ道ヲ備フ。
- 1:3 野ニ人聲有リ。呼デ云ク、主ノ道ヲ備へ、其(ノ)徑ヲ直セヨト。
- 1:4 約翰野ニ在テ、洗禮ヲ施シ、悔改ノ洗禮ヲ傳ヘテ、罪ノ赦ヲ得セシム。
ヨハネ
- 1:5 猶太ノ地ヲ擧リ、耶路撒冷ノ人ト俱ニ出テ之ニ就キ、悉ク約但河ニ在テ、洗禮ヲ
ユダヤ エルサレム ヨルダン
約翰ニ受ケ、各々己ガ罪ヲ認ム。
ヨハネ

마지막으로 明治譯聖書에서 추출된 각각의 동사에 해당하는 한자와 훈을 訓點聖書에서 찾아 해당 단어의 한자와 훈을 마이크로소프트엑셀에 입력하여, 두 성서의 동사 훈과 한자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든다. 위에서 추출한 明治譯聖書の 동사와 訓點聖書の 동사를 대비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 동사 대비]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2 ⁶⁾ | 錄(しる)す | 錄ス |
| 0102 | 視(みる) | 視ル |
| 0102 | 遣(つかは)す | 遣ス |
| 0102 | 設(まう)く | 備フ |
| 0103 | 呼(よ)ぶ | 呼フ |
| 0103 | 備(そな)ふ | 備フ |
| 0104 | 施(ほどこ)す | 施ス |
| 0104 | 得(う) | 得 |
| 0104 | 宣傳(のべつた)ふ | 傳フ |
| 0105 | 來(く) | 出ツ |
| 0105 | 認(いひあら)はす | 認ム |
| 0105 | 受(う)く | 受ク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성서의 동사가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設(まう)く:備フ」「來(く):出ツ」「認(いひあら)はす:認ム」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施(ほどこ)す:施스」와 같이 訓點聖書の 훈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예도 있다.

3. 明治譯聖書の 動詞翻譯語와 訓點聖書

위와 같이 정리된 두 성서의 동사 한자와 훈을, 먼저 훈이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그 후 전체 2159개의 용례에 대해 세부적인 분류를 하였다. 분류의 내용과 용례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장과 절을 나타낸다. 즉 [0102]는 1장 2절을 가리킨다.

- [1] 훈이 같다 : 1021예
 - a. 한자도 같다⁷⁾ : 926예
 - b. 한자는 다르다 : 34예
 - c. 明治譯聖書에 한자표기가 없다 : 61예
- [2] 훈이 다르다 : 910예
 - a. 한자는 같다 : 226예
 - b. 한자도 다르다 : 542예
 - c. 明治譯聖書에 한자표기가 없다 : 46예
 - d. 明治譯聖書의 단일동사가 다른 형태로 대응하였다 : 96예
- [3] 알 수 없다 : 228예
 - a. 訓點聖書에 훈이 없어서 알 수 없거나, 訓點聖書에 「한자+스」 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 44예
 - b. 訓點聖書에 훈이 없고 다른 훈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8예
 - c. 明治譯聖書에 한자표기 없고 訓點聖書에 훈이 없고 다른 훈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1예
 - d. 明治譯聖書 동사가 訓點聖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15예

위와 같이 분류된 동사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즉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가 훈이 같은 동사는 1021예이다. 그 중 [1a], 즉 한자까지도 일치하는 것은 926예⁸⁾이다.

[1a]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2 | 視(み)る | 視ル |
| 0102 | 遣(つか)はす | 遣ス |
| 0103 | 呼(よ)ぶ | 呼フ |
| 0103 | 備(そな)ふ | 備フ |
| 0104 | 得(う) | 得 |
| 0105 | 受(う)く | 受ク |
| 0107 | 勝(まさ)る | 勝ル |
| 0107 | 來(く) | 來 |
| 0107 | 解(と)く | 解ク |
| 0109 | 來(く) | 來 |
| 0109 | 受(う)く | 受ク |
| 0113 | 試(こころ)みる | 試ル |
| 0114 | 囚(とら)ふ | 囚フ |
| 0114 | 至(いた)る | 至ル |
| 0114 | 傳(つた)ふ | 傳フ |
| 0115 | 信(しん)ず | 信ス |

7) 훈이 없어도 다르게 읽혔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포함하였다.

8) 訓點聖書에 훈이 적혀있지 않아도 「仰(あふぐ) : 仰テ(0734)」 「忘(わす)る : 忘テ(0814)」 와 같이 明治譯聖書와 다르게 읽혔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도 포함시켰다.

[1a]에 속하는 예는 전체 2159예 중 약 43%에 해당한다. 여기에 속하는 동사는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의 관련을 입증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b]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6 | 着(き)る | 衣ル |
| 0127 | 從(したが)ふ | 順フ |
| 0132 | 落(い)る | 入ル |
| 0335 | 從(したが)ふ | 遵フ |
| 0430 | 喩(たと)ふ | 譬フ |
| 0439 | 靜(しづ)まる | 靖マル |
| 0538 | 哭(なく) | 泣ク |
| 0543 | 與(あた)ふ | 予フ |

다음으로 [1b], 즉 훈은 같으나 한자는 다른 예이다. 모두 34예가 있다. [1a]만큼은 아니지만 明治譯聖書가 일본어 훈을 선택할 때에 訓點聖書가 참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訓點聖書의 한자가 선택되지 않은 것은 明治譯聖書 번역 당시로서는 訓點聖書의 한자보다 해당 훈과의 결합력이 강한, 다시 말해 상용도가 높은 한자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訓點聖書의 바탕이 된 한문성서는 본래 중국어이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용례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가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서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明治譯聖書에 한자는 적혀 있지 않으나 훈이 같다고 판단되는 예를 [1c]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모두 61예이다.

[1c]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24 | く | 來 |
| 0131 | とる | 執ル |
| 0141 | のぶ | 伸ブ |
| 0142 | きよむ | 潔ム |
| 0144 | ゆく | 往ク |
| 0144 | きよむ | 潔ム |
| 0144 | なす | 爲ス |
| 0145 | いづ | 出ツ |

다음으로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의 훈이 다른 것으로 [2]로 분류하였는데, 모두 910예로 전체 용례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 중 훈은 다르지만 한자가 같은 것을 [2a]로 분류하였다. 같은 한자이지만 明治譯聖書에서는 訓點聖書와는 다른 훈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訓點聖書에서 음독했던 것을 훈독한 것도 있고, 같은 훈독이더라도 다른 훈이 선택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明治譯聖書의 번역 위원들은 이 용례들의 한자에 대한 訓點聖書의 훈이 당시의 일본어 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훈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2a]에 속하는 용례는 모두 226예이다.

[2a]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1547 | 葬(おく) | 葬ル |
| 1601 | 買(かひ)ととのふ | 買フ |
| 1605 | 駭(おどろ)き異(あやし)む | 駭異ス |
| 1606 | 駭(おどろ)き異(あやし)む | 駭異ス |
| 1606 | 釘(つけ)る | 釘ス |
| 1606 | 葬(おく) | 葬ル |
| 1608 | 懼(おそ)る | 懼ス |
| 1611 | 見(み)ゆ | 見ル |
| 1618 | 操(とら)ふ | 操ル |
| 1620 | 宣傳(のべつたふ) | 宣傳ス |

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한자에 달린 훈도 다른 것은 [2b]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용례는 모두 542예이고, 전체 용례 중의 약 25%를 차지한다. 두 성서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용례라고 할 수 있다.

[2b]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1608 | 駭(おどろ)く | 戰慄驚駭스 |
| 1608 | 語(かた)る | 告ク |
| 1609 | 甦(よみがへ)る | 復生스 |
| 1609 | 現(あら)はる | 現與스 |
| 1609 | 逐出(おひいた)す | 離レシム |
| 1611 | 活(い)く | 生ク |
| 1612 | 變(かは)る | 改テ |
| 1614 | 甦(よみがへ)る | 復生스 |
| 1615 | 廻(めぐ)る | 往ク |
| 1615 | 宣傳(のべつたふ) | 傳フ |
| 1617 | 逐出(おひいた)す | 逐フ |
| 1618 | 接(つく)く | 按스 |
| 1619 | 語(かた)る | 言フ |
| 1619 | 擧(あ)ぐ | 昇ル |
| 1620 | 協(あ)はす | 相ク |

「駭(おどろ)く : 戰慄驚駭스」와 같은 예는 訓點聖書の 4자한자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본어 문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訓點聖書の 동사를 취하지 않고 해당 문장에 가장 적합한 훈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宣傳(のべつたふ) : 傳フ」의 예는 明治譯聖書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宣傳(のべつたふ)」라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訓點聖書와는 다른 동사의 한자와 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擧(あ)ぐ : 昇ル」는 ‘들쳐 메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당시로서는 「擧(あ)ぐ」 쪽이 자연스러운 일본어 어휘였으므로 訓點聖書와 다른 번역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용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2c]는 훈이 다른 것 중 明治譯聖書에 한자가 기입되지 않는 용례로서 46예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용례도 역시 訓點聖書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리가 있는 예라고 하겠다.

[2c]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1428 | よみがへる | 復生ス |
| 1441 | く | 至ル |
| 1452 | すつ | 棄テ |
| 1457 | たつ | 有 |
| 1466 | く | 至ル |
| 1520 | きせる | 衣ス |
| 1546 | おく | 葬ル |
| 1610 | く | 往ク |

明治譯聖書에서 단일 동사로 번역된 것이 訓點聖書에서도 반드시 동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어구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예는 96 예나 확인된다.

[2d]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6 | 食(くら)ふ | 食(名詞) |
| 0115 | 近(ちか)づく | 邇シ |
| 0116 | 網(あみ)うつ | 罟ヲ施ス |
| 0123 | 汚(け)がる | 汚鬼ヲ患フ |
| 0132 | 携(たづ)ぎへ來(く) | 携テ~就ク |
| 0139 | 經(へ)めぐる | ~ニ於テ |
| 0140 | (潔)く爲(な)す | 潔クス |
| 0204 | 近(ちか)づく | 近ク |
| 0212 | 崇(あ)がむ | 榮ヲ~歸ス |
| 0214 | 進(すす)む | ~由シテ往ク |
| 0304 | 生(い)く | 生(名詞) |
| 0434 | 解聽(とき)かす | 解ヲ與フ |
| 0501 | (海)ヲ濟(わた)る | (海)ノ彼ノ岸ナル |
| 0510 | 逐出(おひ)いだす | 逐テ出ス |
| 0513 | 馳(か)けくだる | 坡ニ逸ス |
| 0523 | 死(し)ぬ | 死ニ瀕セリ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明治譯聖書の 동사 번역어가 訓點聖書에서는 명사나 형용사, 형용동사와 같이 다른 품사로 읽히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어구로 풀이되고 있는 경우도 적

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것은 訓點聖書는 한문에 준해서 일본어 문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제약이 있는 반면, 明治譯聖書의 경우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일본어 문장으로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은 두 성서의 훈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 할 수 없는 예인데, 모두 228예가 여기에 속한다. 그 중 [3a]는 訓點聖書에 훈이 없어서 알 수 없거나, 訓點聖書에 훈이 없이 「한자+스」 라고만 적혀 있어서 음독·훈독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여 어느 한쪽으로 훈을 확정할 수 없는 예들을 모았다. 모두 44예이다.

[3a]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8 | 施(ほどこ)す | 施ス |
| 0108 | 施(ほどこ)す | 施ス |
| 0120 | 遺(のこ)す | 遺ス |
| 0131 | 起(おこ)す | 起ス |
| 0134 | 許(ゆる)す | 許ス |
| 0135 | 祈禱(いのり)す | 祈禱ス |
| 0216 | 食飲(くひのみ)す | 食飲ス |
| 0305 | 環視(みまは)す | 環視ス |

[3b]는 訓點聖書에 훈이 없고 明治譯聖書와 같은 훈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훈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예이다. 예를 들어 「上ル」의 경우 「あがる」 혹은 「のぼる」 라고 읽을 수 있고 「食フ」의 경우 「くふ」 혹은 「くらふ」 라고 읽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모두 48예가 여기에 속한다.

[3b]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10 | 上(あがる) | 上ル |
| 0110 | 降(くだ)る | 降ル |
| 0126 | 呼(さけ)ぶ | 呼フ |
| 0222 | 壞(すた)る | 蔽ル |
| 0314 | 遣(つか)はす | 遣テ ⁹⁾ |
| 0323 | 召(よ)ぶ | 召テ |
| 0506 | 趨(はしり)よる | 趨テ |
| 0511 | 食(く)ふ | 食フ |

[3c]는 明治譯聖書에 한자가 없고 訓點聖書에 훈이 없고 서로 다른 훈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모두 21예가 있다.

9) 「テ」 라고만 가정되어 있는 용례의 경우, 음독했을 가능성도 있고, 훈독하였다더라도 어떤 동사형태일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자+テ」 로 나타내었다.

[3c]

| | 明治譯聖書 | 訓點聖書 |
|------|-------|------|
| 0106 | つかぬ | 束ヌ |
| 0119 | つくるふ | 補フ |
| 0135 | ゆく | 適ク |
| 0214 | たつ | 起テ |
| 0222 | いる | 盛ル |
| 0437 | おこる | 作ル |
| 0504 | うちきる | 斷 |
| 0515 | つける | 衣テ |

마지막으로 [3d]는 明治譯聖書の 동사가 訓點聖書에서 동사는 물론 어떠한 어휘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모두 115예나 존재한다.

1:22

명:~蓋(そは)學者の如(ごとく)ならず權威(けんゐ)を有る者の如く教(をしへ)たまへば也(なり)

훈:~其(ノ)教ノ權ヲ操ル者ノ如ニシテ士子ノ如ニ非ルニ因ル。

8:16

명:~是(これ)パンを携(たづさ)へざりし故(ゆゑ)ならん

훈:~是我儕餅無ガ爲メ歟。

15:46

명:~石(いし)を墓(も)の門(もん)に轉(まろば)し置(おけ)り。

훈:~一石ヲ於墓門ニ轉ス。

첫 번째 예는 1장 22절 후반부의 「教(をしへ)」의 예인데, 그에 해당하는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8장 16절의 예로 明治譯聖書에서는 「携(たづさ)ふ」라는 구체적인 동사 번역어를 두고 있으나 訓點聖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문과와 일본어의 표현구조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15장 46절의 문말이다. 明治譯聖書에서는 「轉(まろば)し置(おけ)り」라고 하여 訓點聖書の 「轉ス」와는 달리 「置(おく)」라는 동사를 부가하여 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문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明治譯聖書는 원문인 한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訓點聖書の 한계를 극복하면서 당시의 일본 어로서 자연스러운 번역문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明治譯聖書는 한문성서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원전성서와 그에 대한 영어 주해서 등을 참조하여 번역되었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 있다. 번역의 중심에 선 것이 서양 선교사였음을 고려할 때 明治譯聖書の 번역어

는 영어 번역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의 결과물이 일본어이므로 실제로는 앞서 간행된 일본어 성서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訓點聖書의 경우 당시 널리 읽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訓點聖書 위에 한자와 일본어 훈의 결합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明治譯聖書의 동사 번역어와 訓點聖書의 관련성에 대해 명백히 하고자 하였다. 고찰 결과 明治譯聖書와 訓點聖書의 동사의 훈이 일치하는 것은 1021예로 전체의 약 47%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훈이 일치하지 않는 예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 두 성서의 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1152예, 즉 전체의 53%는 일치하고 있지만 47%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訓點聖書가 본래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성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어와 중국어가 한자 사용면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훈의 차이는 한자의 차이에 기인한 예도 있으나 訓點聖書가 본문에 준하여 일본어로 읽어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漢文訓讀體라는 문체적인 한계가 있는 데 비해 明治譯聖書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두 성서의 문헌적인 성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明治譯聖書는 여러 성서들을 참고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고찰 결과가 나타내는 수치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공식적으로는 한문성서를 참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번역어의 선택이나 문맥의 이해는 訓點聖書を 매개로 하여 한문성서를 이해하였음을 본고의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泉田昭(1996) 『日本における聖書とその翻訳』 日本聖書刊行会
 岩崎摂子(1995) 「日本語研究からみたベッテルハイムの漢和对訳聖書」 『比較文化研究年報』 7, pp.1-32
 海老沢有道(1981) 『日本の聖書 聖書和訳の歴史』 日本基督教団出版局
 門脇清・大柴恒(1983) 『日本語聖書翻訳史』 新教出版社
 川島二郎(1993) 「初期の日本語聖書と中国語聖書」 『しにか』 1993-11 大修館書店, pp.78-83
 岸千年(1972) 「聖書翻訳をめぐる」 『聖書翻訳研究』 1972-4, pp.27-39
 木下順二(1975) 「聖書の翻訳をめぐる」 『聖書翻訳研究』 1975-11, pp.3-11
 酒井孝夫(1960) 「聖書の語学」 『金城国文』 7-2, pp.10-14
 左近淑(1973) 「聖書翻訳に関する邦訳文献」 『聖書翻訳研究』 1973-7, pp.40-47
 斎藤文俊(1995) 「明治初期における聖書の翻訳と漢文訓読」 『国語学論集』 汲古書院, pp.1005-1020
 鈴木範久(2006) 『聖書の日本語』 岩波書店
 鈴木英夫・福井靖子(1999) 「明治初期の聖書の翻訳について」 『白百合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論集』 1, pp.3-26
 関根正雄(1980) 「聖書翻訳の理論と課題」 『文学』 48-12, pp.144-155
 関根文之助(1981) 「聖書日本語訳事始」 『日本文学論究』 41, pp.4-9
 高橋虔(1970) 「聖書新約の諸問題」 『聖書翻訳研究』 1970-1, pp.4-23
 田中奈央(2000) 「明治期における聖書の翻訳」 『東京女子大学日本文学』 93, pp.67-81
 築島裕(1971) 「聖書の日本語について」 『聖書翻訳研究』 3, pp.27-32
 土崎健治(1993) 「邦訳聖書の源流としての漢譯聖書」 『しにか』 1993-11 大修館書店, pp.66-71

- 中沢洽樹(1971)「聖書翻訳の諸問題」『聖書翻訳研究』1971-3, pp.33-45
- 御法川恵子(1965)「聖書和訳とその訳語についての国語学的研究」『日本文学』(東京女大)25, pp.76-87
- 彦坂佳宣(1990)「初期聖書訳『約翰(ヨハネ)福音之伝』の促音表記」『国語論究』2, pp.186-203
- 森岡健二(1962)「明治初期の漢語」『文学』30-2, pp.142-153
- 森岡健二(1967)「委員会和訳聖書の文体と漢訳聖書」『キリスト教と文化』3, pp.1-57
- 森岡健二(1969)「第七章 新訳聖書の和訳」『近代語の成立 明治期語彙編』明治書院, pp.181-226
- 森岡健二(1974)「聖書の翻訳と現代語の表現」『聖書翻訳研究』1974-8, pp.3-7
- 矢崎健一(1972)「中国語聖書翻訳小史」『聖書翻訳研究』1972-4, pp.27-39
- 오미영(2008A)「일본 명치역성서의 명사 번역어 연구」『일본연구』36, pp.183-201
- 오미영(2008B)「일본 명치역성서의 명사번역어와 이수정[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의 번역어 연구」『일본학연구』25, pp.367-388

— 〈 要 旨 〉 —

日本の明治譯聖書における翻譯語の研究

- 動詞翻譯語と訓点聖書との関連を中心に -

本稿は、1880年刊行された明治訳聖書の動詞翻譯語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日本最初の公認譯聖書である明治訳聖書の刊行以前、日本では中国語聖書である漢文聖書の上に訓点を記入した訓点聖書が広く読まれていた。そこで、明治訳聖書の動詞翻譯語には、先行の聖書である訓点聖書の影響が見ら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わけである。

明治譯聖書の馬可福音を対象として動詞を抽出した結果、合計2159を得た。訓点聖書の場合、漢字と訓との結び付きがそのまま確認できるため、明治譯聖書の翻訳に大いに参照された可能性がある。しかし、本稿の考察結果は、このような予想を必ずしも支持するものとは言えない。明治譯聖書と訓点聖書の動詞の訓が一致するのは1021例で、全体の約47%である。また、両方の漢字が一致するのは1152例で、全体の約53%に該当する。漢字の不一致は、日本語と中国語との漢字使用における相違とみることができる。訓の相違は、漢字の相違によるものがあるが、訓点聖書が本文の漢字に準じて読まれ、さらには漢文訓讀體という文体的な制限を持っているのに対して、明治譯聖書はそのような制限を持たないという両聖書の根本的な文献的性質の相違によるもの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しかし、明治譯聖書の翻訳には、漢文聖書のほかにも多くの聖書を参照されており、そういう意味では、本稿の考察の結果の数値は、決して少ないものではない。ひいていえば、本稿の考察を通して、公式的には漢文聖書を参照したと記されているが、実際には訓点聖書を媒介にして漢文聖書を理解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見えよう。

■ **오미영(吳美寧)**

송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조교수

id-omy@hanmail.net

■ 투 고 일 : 2008년 9월 30일

■ 심사개시 : 2008년 10월 23일

■ 심사완료 : 2008년 11월 23일